

복식의 계열 구조와 통합 구조
-르네상스 복식과 바로크 복식을 중심으로-

尹 点 順 · 韓 明 淑*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 상명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The Analytic and Synthetic Structures of the Costumes
-Centered on Costume in Renaissance and Baroque Periods-

Jeom-Soon Yoon and Myung-Sook Han*

Dept. of Fashion Design, Associate Professor of Honam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Education, 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Ⅲ.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의 구조 분석
I. 서 론	1. 복식의 계열구조
Ⅱ. 이론적 배경	2. 복식의 통합구조
1. 구조주의	Ⅳ. 결 론
2. 복식의 계열구조와 통합구조	참고문헌

Abstract

Followings are the analysis of the two areas' costumes, the Renaissance and Baroque, as the analytic and synthetic structures.

From the analytic structure of the costumes, the analytic body and of the Renaissant man's outer garments is manteau, pourpoint, trousses, bas du chausses, and codpiece of the hat is toque.

And the analytic body of the Baroque, man's costume is pourpoint and rhingrave, of the under garments is chemise, of the hat is felt, of the shoes is shoes.

In the analytic structure of woman's costume, the analytic body of the Renaissant outer garments is robe, of the under garments is corps-pique, chemise, and vertugadin, of the hat is french hood. And the analytic body of the Baroque outer garments is skirt and overdress, of the undergarments is corps-baleine.

The results we have got from the analysis of the synthetic structures of the costumes is that other analytic elements are chosen and united as the component features of the major analytic elements among the analytic elements in the tables of 3-1, 3-2, 3-3, and 3-4.

If we compare the two analytic bodies of the two areas, we can see that the names of the costumes were changed and the component features about the names were changed according to an area, too. And we can see the synthetic structures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analytic body in the analytic structures with the synthetic structures.

I. 서론

본 연구는 사적인 서양복식을 언어학자인 소쉬르(Saussure)에 의해 정립된 구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복식의 계열구조와 통합구조를 분석하여 복식의 계열체와 통합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복식을 하나의 기호로 볼 때 기호란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인 또는 의도적인 결합체로서 많은 의미를 나타내 주며 그 의미를 나타내 주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가진다. 이 기호 이론은 구조주의 이론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연구는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복식을 계열체로 분류시켜 정리하고 또 한 형태의 옷이 될 수 있도록 결합시키는 통합체로 만들어 그 시대의 특징적인 복식형태를 분석규명해 보고자 한다.

르네상스시대와 바로크시대 즉 두 시대의 복식을 계열체로 분류시켜 복식명칭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명칭에 대한 구성특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아보고 또한 통합체도 계열체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르네상스 시대는 고전적인 균형과 조화, 정적인 우아함에 대해서 바로크 시대는 유동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기풍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시대를 비교하여 보면 복식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르네상스시대와 바로크시대를 연구의 범위를 정했다.

이러한 구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복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한명숙¹⁾의 “한국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이성희²⁾의 “군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서은주³⁾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복식분석”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사적인 연구로 서양복식의 르네상스시대와 바로크시대의 복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복식사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구조주의

소쉬르(Saussure)의 일반언어 이론은 언어를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는 언어를 하나의 자율적인 체계로 보고 그러한 언어체계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 했다.⁴⁾ 체계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나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부분은 부분내에서 부분들끼리 서로 대립되고 변별될 때 가치를 갖는다. 즉 이러한 체계를 구조라 한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이러한 구조주의적 토대 위에서 복식과 같이 비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의미작용도 그것의 구조는 문자언어의 그것과 유사한 기호체계에 기초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구조주의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모든 요소의 성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으며 실제로는 그 상황에 되어있는 다른 요소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실체는 경험이든 그것의 완전한 의미는 그것을 부분으로 삼고 있는 구조안으로 통합되어짐으로써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부분 자체의 구조이고 둘째는 전체 자체의 구조이다. 전자는 부분들

1) 한명숙, “한국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1987.

2) 이성희, “군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 구한말의 군복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상명여자대학교, 1995.

3) 서은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복식 분석” - 여주인공 복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1996.

4) 소쉬르, 구조주의, 민음사, p. 37, 1984.

5)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pp. 20~21, 1993.

내부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계열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후자는 완성된 전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통합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소쉬르는 기호가 약호(code)로 조직되는 방법을 계열구조관계와 통합구조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계열구조는 동일한 기능을 지니는 연관집합 내에서 기호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각각의 집합이 계열체인데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로 계열체에 속하는 단위(기호)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이것들은 구성원을 결정짓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두번째로 각 단위들은 그 계열체에 속하고 있는 다른 단위들과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같은 계열체에 속하는 기호들은 기표와 기의에 의해 그것들 간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열체의 특징은 선택에 있다.

통합구조는 이러한 계열체에서 선택된 단위들이 다른 단위들과 결합되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즉 통합관계란 선택된 여러 다른 기호들의 결합이다. 계열구조의 주 개념은 <선택>임에 비해서 통합구조의 주 개념은 <결합>이다. 통합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습의 문법>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합의 원리이다. 어느 통합구조든지 특정한 방식으로 기호들을 선택 조합한 것이다. 관습의 문법을 예로 들자면 언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은 통합구조이다.

2. 복식의 계열구조와 통합구조

복식의 계열구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식의 큰 계열체는 겹옷의 계열체, 속옷의 계열체, 모자의 계열체, 양말의 계열체, 신발의 계열체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계열구조는 공통성과 고유특성 혹은 가치를 지닌 기호단위들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다⁶⁾.

복식은 입을 순서에 따라 속옷부터 입고 겹옷을 입으며, 겹옷은 한 부분으로 된 원피스를 비롯하여 투피스, 쓰리피스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부분은 위에만 입을 수 있는 상의와 아래만 입을 수 있는 하의 부분으로 구별되고 또한 속

옷도 상의와 하의로 구별된다. 속옷은 속옷끼리 서로 바꾸어 입을 수 있는데 속옷의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서로 바꾸어 입을 수 있으며, 하의를 상의로 입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제약을 받는 것이다. 신발은 신발끼리, 악세서리는 악세서리끼리 서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착용할 수 있다. 즉 복식의 같은 품목끼리는 얼마든지 교환하여 입을 수 있다. 이것을 복식의 계열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의 계열구조보다 더 계열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각 부분의 기표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용도를 갖는 의미인 기의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⁷⁾.

복식을 조합해서 입을 방법에 따라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운 멋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때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속옷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입고 겹옷은 어떤 모양과 색을 조합해서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 통합관계이다

옷차림의 경우에는 취미와 유행과 사교상의 예절, 정치의 경우에는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⁸⁾. 그래서 우리는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도 자신의 생각대로

<표 1> 통합구조와 계열구조

구분	통합구조	계열구조
언어	문장 : 나는 아프다.	-주어/나는/너는 /그는 -서술어/아프다/ 덥다/춥다
의상	양복 한벌 : 옷도리+바지.	-옷도리/잠바/스 웨터/재킷 -바지/숏팬츠/반 바지/긴바지
가구	침대+테이블+장	여러가지 양식의 침대/테이블/장
건축	기둥+柱頭+아치	여러가지 양식의 기둥/柱頭/아치

6) 이성희, 전계 논문, p. 17.

7) 한명숙, 전계 논문, p. 62.

8) 김정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믿음사, pp. 99~101, 1995.

입는 것이나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다. 로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⁹⁾.

이와 같이 언어, 의상, 가구, 건축 등 인간문화 요소에 적용시켜 보아도 약호(code)속의 여러 계열구조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여 전언(message)으로서의 통합구조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메카니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에의 적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표 2> 남성 복식의 계열 구조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식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식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겉옷	상의	Pour-point	· square neckline or round neckline	겉옷	상의	Pour-point	· whisk collar
			· ruffle collar				· falling band collar
			· ruff collar				· collar 넓어짐
			· 앞이 트인 형식				· cravat
			· 끈이나 단추로 여밈				· 앞이 트인 형식
			· 몸통에 심을 넣어 확장시킴				· 단추로 여밈
			· 상체는 폭 맞고 허리에 V자 형의 절개선				· pad 넣는 것 없어짐
			· peplum은 길이가 긴 형태와 짧은 형태				· peplum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짐
			· peascod-belly 모양				· 길이가 길어져 허리 덮었음
			· slash 장식				· 허리선 강조하지 않고 여유가 있음
			· pad장식				· 길이가 waist line 보다 짧아짐
			· set in sleeve				· peascod-belly 없어짐
			· puff sleeve				· slash장식
			· balloon sleeve				· long sleeve
			· bulky sleeve				· 반 sleeve
			· hanging sleeve				· slash 장식
			· leg of mutton sleeve				· trimming 장식
			· epaulet 장식			Veste	· round neckline
			· ruffle장식된 cuffs				· 앞단추 여밈 형식
		Jaquette	· V neckline or U neckline			Just au corps	· 몸통은 폭 맞고 단은 flare짐
			· 좁은 standing collar				· 길이가 길다
							· long sleeve

9) 소두영, 전계서, pp. 110~111.

Ⅲ.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의 구조 분석

1. 복식의 계열구조

복식에 계열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시대의 남성복식과 여성복식을 분류하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계속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식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식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겉옷	상의	Jaquette	겉옷	상의	Just au corps	· 폭 넓은 cuffs
					Just au corps	· round neckline · 앞 중심에 단추장식 · 몸통은 꼭 맞고 단은 flare 짐 · 좌우 pocket · pocket에 단추와 자수 장식 · long sleeve · 넓은 cuffs · cuffs에 단추 장식
	외투	Cape	외투	Manteau	· 둥근 collar · 후드 달림 · 앞이 트인 형식 · 여유 있음 (cape 식) · 무릎 길이 혹은 더 긴 길이	
					Brandenberg	· 여유 있음 · 종아리까지 길이 · braid로 장식
하의	하의	Trousse	하의	Haut de chausses	· pad, slash 줄어듦 · 품이 넉넉한 형 · 꼭 맞는 형 · 앞부분에 단추 · 옆 pocket · 상부 belt · 무릎 길이 정도 (무릎에서 15~20cm 내려옴) · 끝은 리본으로 묶음.	
		Canion			· 몸에 밀착된 형태 · 무릎길이	
		Venetian			· pad없이 크게 부풀린 형과 약간만 부풀린 형 · 무릎 밑까지 길이	
		Gregue			· 몸에 밀착된 형태 · 무릎 밑까지 길이	
			Pantaloon	· 풍성하게 됨 · 종아리 길이 혹은 발목 길이		

<표 2> 계속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식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식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겉옷하의	Gregue	· 양 옆선에 긴 밴드장식	겉옷하의	Culottes	· 좁게 되어 몸에 꼭 맞는 형태
	Braguette or Codpiece	· chaussees의 앞 트임에 이용 · 역 삼각형의 천으로 된 주머니 모양			· belt로 바지를 허리에 고정시킴 · 무릎길이
	Bas de Chaussees	· 몸에 밀착된 형태 · 좌우 색이나 천이 다름 · 신축성 있는 직물 · 무늬있는 직물 · 종아리에 신는 긴 양말 · 양말 밴드는 천으로 된 끈이 나 리본으로 무릎 밑에서 땀		Rhingrave	· 스커트형 · 넓은 반바지형 · 디바이디드 스커트형 · 리본 장식이 허리 belt에 있음 · 무릎길이 · 무릎에 canon 장식
속옷상의	Chemise	· ruffle collar · 앞이 트인 형식 · 풍성하게 여유 있는 형태 · bishop sleeve	속옷상의	Chemise	· ruffle collar · 앞이 트인 형식 · 풍성하게 여유있는 형태 · 풍성한 bishop sleeve · 긴 cuffs에 ruffle 달림
			양말		· 신축성 있는 양말 · 무늬나 자수 놓음
머리		· 어깨까지 늘어 뜨림 · 짧은 형태	머리		· 긴머리 형태 · 풍성한 가발형태 · 염색
모자	Barrette	· brim이 위쪽으로 향함 · crown 낮다 · 모자안쪽에 끈이 있다.	모자	Felt 모	· 넓은 brim · brim 감아 올려짐 · crown 낮아짐 · 깃털장식
	Toque	· crown이 둥글고 높다.			
	Casquette	· beret형			
신발	Duckbilloe	· 오리주둥이 같은형 · 끈이 달림	신발	Buckets	· 다리를 덮을 정도 길며 입이 정강이를 향해서 나팔꽃 형으로 열림
	Shoes	· slash 장식 · 굽이 달림 · 앞부분 각이 지면서 뾰족함		Shoes	· 끝이 네모지고 비교적 가늘다 · 높은 굽과 곡선이 있다. · 리본장식

<표 3> 여성복식의 계열구조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복식			바로크 시대의 여성복식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겉옷상· 하의	R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are neckline · round neckline · V neckline · square neckline에 ruffle 장식 · high neckline ruffle 장식 · ruffle collar · 대형의 ruff collar · medici collar · (queen)elizabeth collar · partlet(가슴장식) · high waist line · normal waist line ·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해 V형의 waistline · stomacher 장식 · slash와 pad로 장식 · 꼭 끼는 tight sleeve · 깃털 장식된 sleeve · bell sleeve · 모피 cuffs · 풍성한 set in sleeve · epaulette 장식 · puff sleeve · leg of mutton sleeve · hanging sleeve · lace된 sleeve · 스커폭이 약간 넓거나 주름 잡힘 · 원추형의 silhouette · bell형 · 스커트 앞 중심선 A형으로 벌림 · 스커트 길이 짧아서 발목 보임 · 원통형의 silhouette 	겉옷상의 하의	Jac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und neckline · square neckline · neckline on lace frill 장식 · decollet · partlet fichu 장식 · ruff collar · falling band collar · medici collar · whisk collar · flat collar · high waist에 리본장식 · 몸체가 부드럽고 풍부한 style · stomacher 길이 짧아지고 끝이 둥근형 · 여러 조각의 peplum · 200°~360°로 넓게 된 peplum · 리본 장식한 stomacher · 몸체 꼭 끼고 stomacher 길고 뾰족함 · leg of mutton sleeve · puff, slash 장식 · 팔꿈치 길이 · 팔꿈치에 플라멩 것 · 전체 팽창시킨 것 · 양가장뜨 cuffs · 넓은 cuffs
	Gamu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트임 · 상체는 여유있게 맞춤 		Ski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추형의 스커트 · 색이 다른 2가지 이상 스커트 겹쳐 착용 · 스커트 앞을 A형으로 벌림 · 뒤쪽으로 견어올린 over-skirt · bustle silhouette · train · tiered skirt

<표 3> 계속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복식				바로크 시대의 여성복식			
분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분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겉옷	외투	Gamura	겉옷	하의	Skirt	· 리본장식	
				상·하의	Overdress	· 어깨에 꼭 맞는 형태 · dress는 바닥 길이 · 앞 중심이 위에서 단까지 트임 · 소매없이 뒀만 달림 · 긴 hanging sleeve · 짧은 소매 달림	
속옷	상·하의	Chemise	속옷	상·하의	Chemise	· neckline에 lace와 frill 장식 · 전체가 너그럽게 만든 one-piece · 소매부리에 lace와 frill 장식	
						상의	Corps-pique
	Corps-baleine	· 몸을 조이기 위한 corset · 앞면과 뒷면에 어깨로부터 몸의 중심부 향해 곡선의 솔기선 · 앞이나 뒤 중앙에 트임 · peplum 있음					
		Stomacher	· 가슴과 아랫배에 걸쳐 역삼각형으로 붙인 장식 가슴받이 · 보석이나 화려한 자수 장식	Stomacher	· 가슴과 아랫배에 걸쳐 역삼각형으로 붙인 장식 가슴받이 · 앞이나 뒤에서 끈으로 고정화 시킴 · 보석, 진주, 단추 또는 리본으로 장식		
하의	Vertugadin		하의		Cul de paris	·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버팀대 · bell형의 silhouette · 허리선 절개시 앞 중앙선이 V형	
		·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버팀대 · hip에 붙이는 허리 받침					

<표 3> 계속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복식			바로크 시대의 여성복식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속옷	Housseuc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버팀대 · 원통형의 실루엣 · 외관이 조종형이나 거꾸로 놓은 갈매기 모양 · wheel-farthingale이라는 대형의 버팀대 	속옷하의	Cul de pa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으로 주름잡는 형 · 철사로 짜 맞춘 것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이마 드러냄 · 장식이 적어짐 · 풍성한 머리 과치 · 가발 착용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머리형 · 중앙을 갈려 양쪽에 길게 늘어뜨린 형 · 땅은 형
	Ve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천 일면에 자수 또는 주름잡아 장식 · 검은 망이나 벨벳 · heart모양의 veil 		Font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마 또는 lace에 풀을 먹여 잔주름 잡아 2층 또는 3층으로 층층이 새워 부채를 편 것같이 보임
모자	Bon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석이나 진주로 장식 		Cab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 전체를 화려하고 커다랗게 부풀림
	Balz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둥근 doom형 toque 			
	To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깃털장식이 있음 			
	Bavo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마 위가 수평으로 되어 있고 뒤쪽이 드리워진 것 			
	French 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머리 들어내어 머리카락 많이 보임 · coiffe나 금사로 짠 망을 쓰고 bonnet모양의 cap을 뒤쪽으로 쓰고 턱에서 끈으로 매는 형식 			
	Gable 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중앙에 딱딱한 골조로 각이 지게 함 · 측면에 lappet이 양쪽으로 늘어짐 · lappet을 위로 접어 올려 고정시킴 			

<표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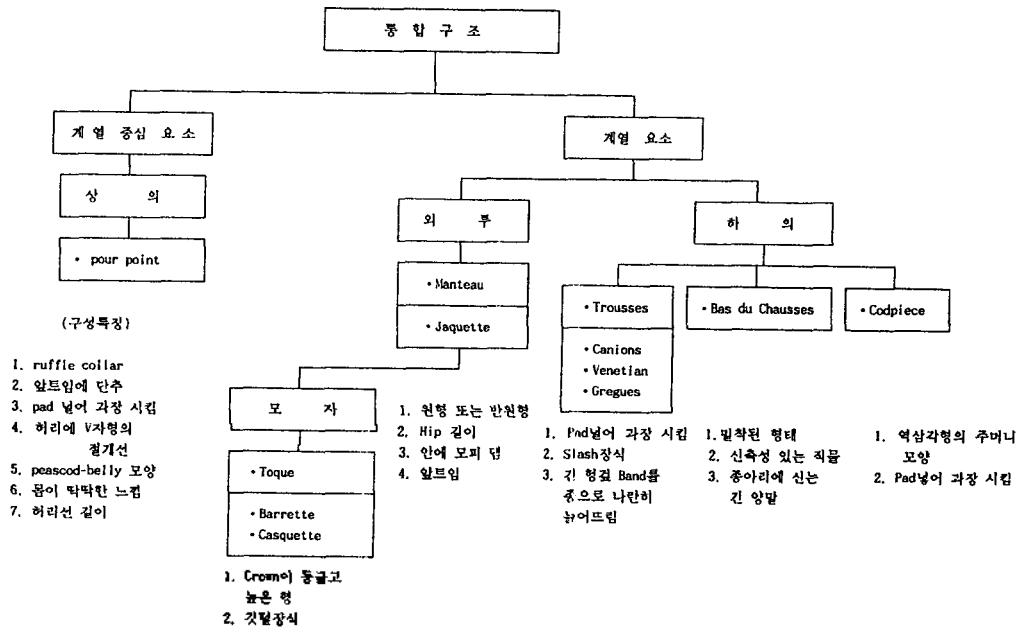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복식			바로크 시대의 여성복식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분 류	계열요소	구성특징
신발	Chop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가 커 보이기 위한 신발 · 슬리퍼식의 높은 신발 · 굽의 모양은 가운데가 곡선이 진 실패모양 · 영국 cork바닥에 slash 무늬의 가죽 구두 · 굽달린 신발 	신발	견사로 자수된 구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꿈치 부분과 장식이 여성적인 것이 특징 · 앞 끝에 적당히 뾰족하고 섬세한 곡선이 high heel은 7~8cm 정도 · 발등 부분에 끈 또는 buckle
				Pat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아 나쁠 때나 비가 올 때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음

2. 복식의 통합구조

복식은 한 시대 중에서도 연도에 따라 변천하므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적인 변화를 다루므로 그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남녀 복식을 하나씩 선택하여 통합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성의 특징적인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남성의 어깨 부분이므로 남성의 상의를 계열중심요소로 선택하였으며 여성은 스커트에서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하의인 스커트를 계열중심요소로 선택하였다.

계열중심요소란 계열요소 중에서 이 시대의 특



<표 4>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 복식

정적인 형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말하고 계열요소란 복식의 종류를 말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 복식 <표 4>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두가지로 계열구조에서의 선택과 통합구조에서의 결합이다. 토끄(toque), 망또(manteau), 트루스(trousse), 바 드 쇼오스(bas du chausses), 코드피스(codpiece), 뿌르쁘헝(pourpoint)은 계열요소 즉 의복의 종류를 표시하는데, 각 의복은 몇 가지의 계열체로 구성된다. 이 계열체 중에서 상의의 뿌르쁘헝(pourpoint)을 계열중심요소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이 계열중심 요소에 의해서 선택되어 결합되는 계열요소로 본다. 그리고 계열중심요소와 계열요소들은 몇 가지의 구성특질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데 이 구성



<그림 1>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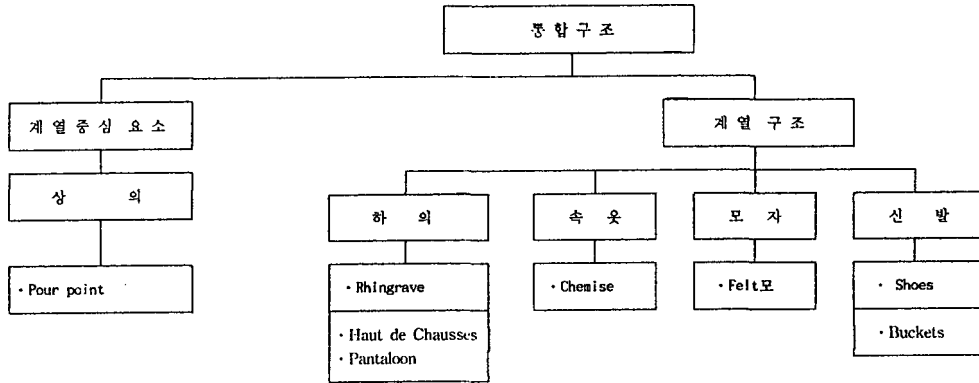
특징들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의해 선택과 결합이 제약받을 받게 된다.

계열중심요소의 구성특징은 러플칼라(ruffle collar)와 bodice에 패드(pad)를 넣은 피스코드 벨리(peascod-belly)형과 V자형의 허리선에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계열요소 중에서 더욱 부풀리게 보이는 트루스(trousses)는 계열중심요소 뿌르쁘헝(pourpoint)의 구성특징 3과 공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며 코드피스(codpiece)도 계열중심요소 3과 공통특징이 있어 선택된다.

나머지 계열요소들의 선택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바 드 쇼오스(bas du chausses)를 선택하여 다리 부분을 밀착시킴으로써 상의의 과장된 부분을 더욱 강조시켰다. 뿌르쁘헝(pourpoint) 위에 모피로 안을 낸 망또(manteau)를 입어 상체의 부피가 커져서 더욱 남성다운 기세를 보여주고 바 드 쇼오스(bas du chausses)는 남성적인 힘을 느끼게 해주며 코드피스(codpiece)는 남성의 권위를 상징한다. 계열요소 토끄(toque)는 망또(manteau)의 구성특징 3과 공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그림 1).

<표 5>에서 바로크 시대의 남성 복식의 계열중심요소는 상의의 뿌르쁘헝(pourpoint)으로 이 계열중심요소의 구성 특징은 폴링 밴드 칼라(falling band collar)와 풍성하게 여유있는 볼레로(bolero)형, 앞중심에 여미고 반 sleeve이며 리본 장식과 루프 다발 장식으로 풍성하게 보이며 과잉장식된 형태이다. 계열요소 중에 풍성한 형태의 슈미즈(chemise)는 계열중심요소의 구성 특징 3, 5와 공통 특징이 있어 선택되며, 루프 다발 장식된 랭그라브(rhingrave)도 계열중심요소의 특징 3, 5, 8과 공통 의미가 있어 선택된다. 슈즈도 계열중심요소의 특징 7과 공통 특징이 있어 선택되었으나 크라운(crown)이 낮고 넓은 브림(brim)이 감아 올려지고 깃털 장식된 펠트(felt) 모는 복식의 전체적인 형태가 부풀리면서 과잉장식의 영향으로 선택되었다(그림 2).

<표 6>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 복식의 계열중심요소는 상·하의이고 이 구성 특징 원추형의 실루엣(silhouette)은 계열요소에서 스커트 버팀



(구성특징)

1. Falling band collar
2. 반 Sleeve
3. 여유 있음
4. Waist line보다 짧아진 Bolero 형
5. 부프 다발 장식
6. 앞 중심 여밈
7. 리본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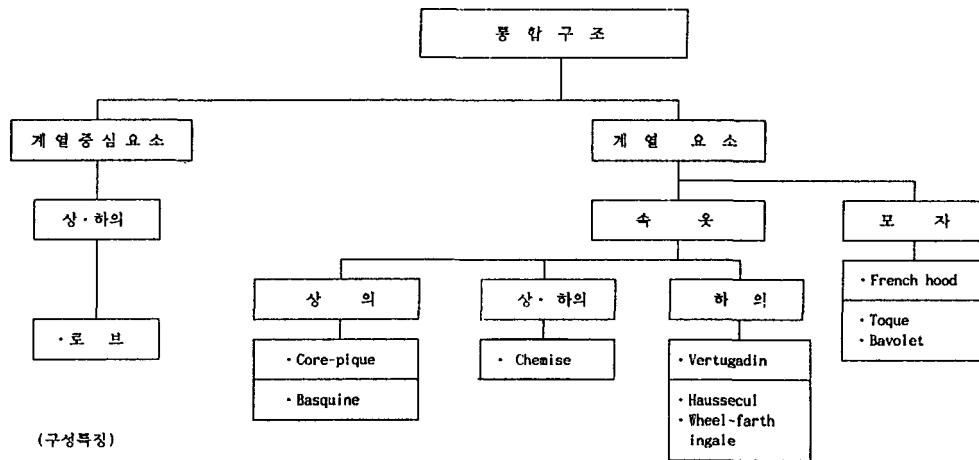
1. 무릎 길이
2. 여유가 있음
3. 부프 다발 장식
4. 리본 장식

1. 통성한 형태
2. 부프 다발 장식

1. Crown이 낮고 넓은 brim이 감 아 올려짐
2. 깃털 장식

1. 굽이 높다
2. 리본 장식

<표 5> 바로크시대의 남성 복식



(구성특징)

1. 원추형의 Silhouette
2. 2개의 스커트 겹쳐 착용
3. 진주나 보석 장식
4. 스커트 앞 A 형으로 벌림
5. 스커트 버팀대 착용
6. Square neckline
7. Medici collar
8. Slash 장식
9. Bell 장식
10. V형의 Waistline으로 가늘게 강조
11. 모피장식
12. Pad 장식
13. Partlet 장식

1. 조끼형태
2. 몸을 강하게 조임
3. 앞중심 V형

1. Partlet 장식
2. 좁은 Tunic 형의 one-piece

1. 원추형의 Silhouette
2. 스커트 버팀대

1. 진주나 보석 장식
2. Bonnet 모양의 Cap

<표 6> 르네상스시대의 여성 복식



<그림 2> 바로크 시대의 남성 복식

앞 중심을 A형으로 벌려 언더 스커트 (under skirt) 가 보이게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계열중심 요소 특징인 진주나 보석장식은 딱딱한 느낌을 주며, 정형화된 형태이다. 이 계열중심요소의 구성특징은 공통의 느낌을 주는 속옷의 상의를 선택하게 된다. 상의는 길게 된 바디스 (bodice), 몸을 조이기 위한 코르셋 (corset),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한 V자형의 허리선의 구성특징과 공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꼬르 빼께 (corp-pique)을 선택하게 되며 또한 슈미즈 (chemise) 도 로브와 공통성이 있어 선택된다.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부풀림으로써 귀족풍의 위엄과 박력, 아름다움을 나타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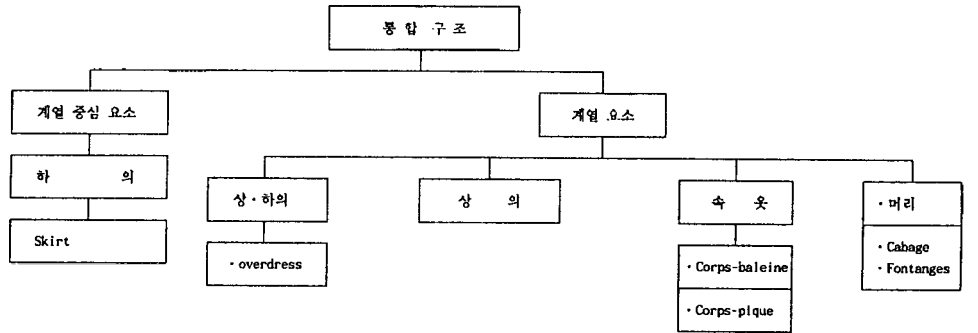


<그림 3> 르네상스시대의 여성복식



<그림 4> 바로크시대의 여성복식

대 베르튀가댕(vertugadin)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두 개의 스커트를 착용하여 스커트



(구성특징)

-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스커트 착용 2. train 3. 스커트 비딩대 착용 하지 않음 4. 앞 중심 A 형으로 벌어짐 5. Under skirt 보임 주름을 넣어 부드럽게 부풀린 형태. 7. high waist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킷이나 스커트 위에 착용 2. 어깨는 잘 맞고 바닥 길이 3. 앞중심이 위에서 단까지 트임 4. 여미지 않고 입는 형태 5. Sleeve가 짧은 것 6. 긴 핏팅 슬리브 7. 소매없는 슬리브 8. train 9. high waist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둘레 V형, U형 2. 목둘레에 lace나 Fichu 장식 3. 상체 조임 4. 부드러운 장식 5. falling band collar 6. 몸체가 부드럽게 맞는 style 7. 리본 장식한 Stoeacher 8. Stoeacher끝이 뒤풀림 9. 반 Sleeve 10. 리본 장식 11. 앞중심 부분 V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짧은 소매나 긴 소매 날림 2. 앞이나 뒤 트임 3. paplum 4. 숄기와 고리수염의 삽입 방법 및 방향이 효과적으로 되어 있음 5. 몸을 조이기 위한 의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을 길러 양쪽으로 곱게 늘어뜨림 2. 리본 장식 |
|---|---|---|--|--|

<표 7> 바로크 시대의 여성 복식

<표 7>에서 바로크 시대의 여성 복식을 보면 바로크 시대의 여성 복식의 계열중심요소인 스커트이고 이 계열중심요소의 구성 특징은 스커트는 부풀리고 상체는 꼭 맞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상의를 선택하고 이 상의의 구성 요소 3과 공통 의미가 있는 코르발렌느(corps-baleine)를 선택한다. 머리는 상의의 구성 특징 10과 공통 의미가 있어 선택하게 된다. 오버 드레스(over dress)는 계열중심요소 2와 7과 공통 의미가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열중심요소의 구성 특징과 선택 요소의 구성 특징과 직접 공통 의미가 있어 선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의 경우 계열중심요소와의 공통 의미보다는 선택 요소중에서 상의의 구성 특징과 공통 의미가 있어 선택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IV. 결 론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과 바로크 시대의 복식을 계열구조와 통합구조로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복식의 계열구조 분석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식의 겉옷의 계열체는 망토(manteau), 뿌르쁘앵(pourpoint), 트루스(trousses), 바 드 쇼오스(bas du chausses), 코드피스(codpiece), 모자의 계열체는 토크(toque)이며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식의 계열체는 뿌르쁘앵(pourpoint), 랑그라브(rhingrave), 속옷의 계열체는 슈미즈(chemise), 모자의 계열체는 펠트(felt)모, 신발의 계열체는 슈즈(shoes)이다.

여성복식의 계열구조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겉옷의 계열체는 로브(robe), 속옷의 계열체는 코르빠께(corps-pique), 슈미즈(chemise), 베르튀가댕(vertugadin), 모자의 계열체는 프렌치 후드(french hood)이며 바로크 시대의 겉옷의 계열체는 스커트(skirt), 오버드레스(overdress), 속옷의 계열체는 코르발렌느(corps-baleine)이었다.

복식의 통합구조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는 <표 4>에서 계열요소중 계열중심요소의 구성 특징에 따라 다른 계열요소가 선택되어 결합되어진다.

두 시대의 계열체를 비교해 보면 복식의 명칭

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명칭에 대한 구성 특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합 구조는 계열 구조에서 계열체에 따라 통합 구조도 더불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시대의 통합 구조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은 르네상스는 인체 중심의 조형이 이루어지던 시대로 완전한 이상미는 인간의 정력, 성숙, 자신감이 있었다. 남성복식의 경우 뿌르쁘엥(pourpoint)의 어깨에 패드(pad)를 넣고 소매에도 패드(pad)와 퍼프(puff)를 이용해 상체를 넓게 과장시켰으나 바로크 시대의 복식은 패드(pad)와 코르셋(corset)의 사용이 감소하였고 느슨하게 떨어지는 칼라와 커프스, 풍성한 슈미즈(chemise), 복식 전체에 물결치듯 흐르는 곡선 리본(ribbon), 레이스(lace), 프릴(frill) 등의 과다한 장식 등이었다.

남성의 경우 르네상스 복식은 딱딱하고 밀착된 다리의 곡선과 코드피스(codpiece)로 남성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냈으나 바로크 복식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즉 바로크는 기묘하고 이상한 이미지를 주면서 생동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르네상스 복식은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여 팽팽하고 딱딱한 형태로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반면에 바로크 복식은 파잉 장식으로 기묘하고 이상한 이미지를 주는 남성복과는 달리 여성복식은 자유롭게 변화하는 효과로써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냈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 백영자 외 1인, 서양복식 문화사, 경춘사, 1989.
- 소두영, 구조주의, 민음사, 1984.
- 신상욱,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0.
-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1993.
-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경춘사, 1986.
- 윤학로 역,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청하, 1993.
- 이정옥 외 2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90.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8.
- 최승현 옮김, 일반 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5.
- 한명숙 옮김, 유행과 문자의상 체계, 경춘사, 1994.
- 서은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복식분석” -여주인공 복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1996.
- 윤점순, “바로크 복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 10집, 1989.
- 윤점순, “인체미를 극화시킨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논문집, 제 12집, 1991.
- 이성희, “군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상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수현, “복식의 미적 범주” -르네상스·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한명숙, “한국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横川公子·河原由紀子·堀修編, 「服飾表現の位相」, 昭和堂, 1992.
- 丹野郁, 服飾の世界史, 東京: 白水社, 1985.
- 丹野郁, 服飾史事典, 東京: 雄山閣, 1980.
- 丹野郁, 외 西洋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昭和 56.
- 石山 彰, 服飾辭典, 東京: グ・イッド社, 1982.
- 元井 能, 西洋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昭和 50.
- 村上憲司, 西洋服裝史, 東京: 創元社, 昭和 61.
- 村上憲司, 西洋服裝史, 東京: 關西衣生活研究會, 昭和 50.
- 服裝大百科事典, 下·東京: 文化服裝學團出版局, 昭和 44.
- Barthes Roland, *The Fashion System*, New York: Hill and Wang, 1983.
- Köhler, Carl,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63.
-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 O'Hare, Georgina, *The Encyclopaedia of*

- Fashion*, London : Thames and Hudson.
31. Payne, Blanche, *history of Coustume*, New York : Haper & Row Publishers, 1965.
32. Wilcox. R, T., *The Mode in Coustume*,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9.